

韓國地圖學의 特色

海 野 一 隆

大阪大

朝鮮地圖學の特色

要 約

永い伝統を誇る朝鮮の科学的地図学の特色の一つとして、山地の連続的表現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われわれが目にするのできるその最も早い例は、権近の建文4年(1402)の跋文を備える有名な『混一疆理歴代国都之図』(京都、竜谷大学所蔵、1472年頃模写)であり、シナ原図の部分にはない山地の連続的表現が、朝鮮で増補された朝鮮半島の部分に見られる。すなわちシナの部分では山地が点々と側面形をもって非連続的に描かれるのに対して、朝鮮の部分では山脈の分岐連続が明瞭な波状曲線をもって列状にあらわされているのである。同様のことはシナ伝来の楊子器の『大明輿地図』(1526年)を朝鮮で模写増補した『混一歴代国都疆理地図』(1560年頃、日本宮内庁、京都妙心寺ほか所蔵)についても言える。この伝統を受け継いでいるのが、鄭尚驥(1678~1752)の『東國輿地図』や金正浩の『大東輿地図』(1861年刊)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であろう。

ではこの手法は朝鮮で独自に開発されたものであろうか。そこで考えねばならないのは、先年、馬王堆3号漢墓から出土した地図2種における山地の表現である。後世のシナにおける多くの地図とちがって、山地を連続的にしかも上空から見たような状態に描いているからである。出土地図のうち「地形図」と仮称されているものについて見ると、山地は線というには余りにも幅のある波状帯として表現されており、その表現の仕方から見てそれは明らかに山麓線を示したものではない。この表現が山稜の連なりをあらわす一定の記号であった可能性が大きい。なぜならすべての山地の表現が没個性的だからである。この点もう一つの「駐軍図」では記号化は一層進み、山地は一本の細い波状曲線になっている。これらの地図において最も正確詳細なのは河川流路であり、測量がこれに沿ってなされたことを示唆すると共に、それらが交通路として重要視されていたことを物語っている。従って山地の連続的表現は河川交通と密接な関係にあり、分水嶺の所在を図上に明示する必要があっ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に山稜と河谷を明示する地図としては、ほかに初期の五岳真形図がある。また地勢を竜にたとえて大地に脈絡を見出そうとするのは「風水」家の好んで行うところである。このような伝統が古来シナにある以上、朝鮮地図学における山地の連続的表現がその影響を受けなかったとは言えないであろう。しかし後世のシナ地図学においてそうした手法が顕著でないのに対して、朝鮮においてひとりそれが忠実に守られてきたのは、シナ以上に道教や風水が優勢であったからではあるまいか。なお日本の地図学では、なぜか同様の手法の存在を見出すことができない。

韓國에 있어서 地圖에 관한 最古의 記錄은 「唐書」東夷傳 高麗條이며, 貞觀 2年(628) 高麗王 眞
 平가 唐太宗에 奉賀使節을 보내고 「封域圖」를 上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¹⁾ 「封域圖」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高句麗王의 支配地域을 나타낸 地圖, 즉 高句麗全圖였을 것이 틀림 없다. 한편, 現存
 하는 地圖로서 最古의 것은 4세기 경의 高句麗 古墳의 하나인 遼東城塚(平安南道 順川郡)의 壁畵

1) 太宗貞觀二年, 破突厥頡利可汗, 建武遣使奉賀, 並上封域圖.

遼東城圖일 것이다.²⁾ 家屋・樓閣 등은 側面形으로 나타나 있으나 전체로서는 분명히 平面圖이며, 單純한 風景畵는 아니고 당시의 地圖學 水準이 결코 낮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唐太宗에 上呈한 「封域圖」는 領土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方位・距離가 확실한 地圖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다. 어쨌든간에 韓國의 科學的 地圖學的 確立은 三國時代의 高句麗 또는 그 이전까지 소급된다고 생각해도 틀림은 없을 것이다. 그후 수많은 地圖가 韓國에서 만들어진 것은 물론이나, 現存하는 地圖의 대부분은 15세기 이후의 作品이다. 그중 가장 오랜 年代를 나타내는 것은 京都의 龍谷大學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 유명한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일 것이다. 이 地圖는 元代의 이슬람 世界圖를 흡수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文字 그대로 世界圖이다. 東洋地圖學史에서 異彩로운 作品으로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³⁾ 새삼스럽게 그 소개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지만 간단히 이 地圖의 成立事情을 말하면, 中國에서 가져온 李澤民的 「聲教廣被圖」 및 僧 清濬의 「混一疆理圖」를 資料로 하여 一圖를 만들고, 그 지도에 朝鮮・日本을 增補하여 建文 4年(1402)에 완성한 것이다. 그러나 靑山定雄氏의 연구에 의하면 龍谷大學本 韓國地名에는 1402년 이후 改廢된 것이 포함되어 있어 成宗 3年(1472)경의 模寫本이라고 한다.⁴⁾

이 地圖에 있어서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山地의 表現方法이 韓半島와 기타부분이 다르다는 것이다. 地圖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라시아 大陸의 山地는 半記號化되어 있고 側面形을 非連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대하여 韓半島의 부분에서는 主脈・支脈이 명료한 山脈으로 平面的으로 파악하고 있다. 같은 한강의 地圖에 서로 다른 표현법이 있음으로 보아 資料가 된 中國製 地圖와 增補할 때 사용한 朝鮮製의 地圖에서 山地表現法이 달랐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現存하는 東西洋의 古地圖에 있어서도 山地의 側面形을 非連續적으로 描寫하는 것이 普通이며, 山地를 脈絡이 있는 것으로 平面的으로 표현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따라서 이 독특한 山地表現法은 韓國地圖學의 特色의 하나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더우기 이 手法은 後代의 作品에도 계승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예로서는 明의 楊子器(正德 8年 <1513>沒)의 「大明輿地圖」(嘉靖 5年<1526>改訂)에 朝鮮을 增補하여 만든 「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1560年頃),⁵⁾ 鄭尙驥(1678—1752)의 「東國輿地圖」,⁶⁾ 1861年刊 金正浩의 「大東輿地圖」⁷⁾ 등을 들 수 있다. 「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에서는 위에 말한 龍谷大學所藏圖와 같이 中國部分과 朝鮮部分의 山地表現이 다르며 山地의 線狀表現은 당연한 것이면서도 韓半

2) 全相連, 「韓國科學技術史」, 1978, 301面 李進熙 “解放後朝鮮考古學的發展(續)——高句麗壁畵古墳の研究——”, 「考古學雜誌」, 45卷 3號, 1959, 43~64面.

3) 小川琢治, 「支那歷史地理研究」, 昭和 3年(1928), 59~62面.

靑山定雄, “元代の地圖について”, 「東方學報」, 東京, 第 8 冊, 昭和 13年(1938), 103~152面.

高橋 正, “東漸せる中世イスラーム世界圖——主として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について——”, 「龍谷大學論集」, 374號, 昭和 38年(1963) 77~95面.

同,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再考”, 「龍谷史壇」, 56, 57合刊號, 昭和 41年(1966) 204~215面.

4) 靑山定雄 前掲論文

5) 日本宮內廳書陵部, 京都妙心寺麟祥院, 京都守屋孝藏氏 등의 所藏品이 알려져 있다.

宮內廳書陵部所藏本에 대해서는,

靑山定雄, “明代의地圖について”, 「歷史學研究」, 7卷 11號, 昭和 12年(1937) 279~294面.

同 “李朝に於ける二三の朝鮮全圖について”, 「東方學報」, 東京, 第 9 冊, 昭和 14年(1939) 143~171面.

妙心寺麟祥院本에 대해서는,

宮崎市定, “妙心寺麟祥院藏의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について”, 「神田博士還暦記念書誌學論集」, 昭和 32年(1957), 577~586面에 각각 言及되어 있다.

6) 韓國圖書館學研究會, 「韓國古地圖」, 1977, 96~103, 114面에 韓國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2種, N.J.W. Throver and Young Il Kim, “Dong-Kook-Yu-Ji-Do: A Recently Discovered Manuscript of a Map of Korea,” *Imago Mundi*, XXI, 1967, pp. 30~49 ‘캘리포니아大學(로스앤젤리스) 所藏本과 李丙燾博士 所藏本이 각각 複製되어 있다.

7) 原圖를 約 2/3로 縮小影印한 것이 韓國史學會에 의해서 1965년에 刊行되었다. 一部分은 前掲「韓國古地圖」 71~74面에 複製되어 있다.

島의 山地에 한정시키고 있다. 근소한 차이는 龍谷大學本은 波狀의 實線인 데 대하여 이 地圖에서는 山型의 記號를 縱方向으로 密集시켜 연결한 위를 다시 덧칠하여 굵은 線으로 만든 것이다. 鄭尙驥의 作品은 八道를 각각 그린 詳細圖이며 山地의 表現은 山型의 記號를 연결시켜 線狀으로 한 것이고 「混一 歷代國都疆理地圖」의 手法와 같다. 이런 點에서 金正浩는 幅의 廣狹이 있는 굵은 曲線의 곳곳에 山地의 側面形을 가하고 있어 종래의 地圖와도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山地를 脈絡이 있는 것으로 보고 平面의으로 파악한 점에서 위의 여러 地圖와 변함이 없다. 이와같이 山地를 線狀으로 표현하는 手法은 적어도 5세기에 걸쳐서 持續되었기 때문에 韓國地圖學史를 특색지우는 現象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手法은 韓國에서 誕生한 것인가?

이 疑問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古代中國의 地圖學에 있어서 山地表現法을 검토해야 한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들은 B.C. 2세기에 있어서의 地圖學의 水準을 알기에 충분한 材料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1973년에 發掘된 湖南省 長沙市의 馬王堆 三號漢墓에서 出土된 絹本地圖(2種)이며 그중 하나는 「地形圖」라고 假稱되는 長沙侯國南部의 地圖, 다른 하나는 「駐軍圖」라고 假稱되는 長沙侯國 南部邊境의 防塞의 配列을 표시한 地圖이다.⁸⁾ 이밖에 縣城平面圖(街房圖)라고 하는 것이 같이 出土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破損이 심하기 때문인지 아직 調查報告나 사진도 公表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들 地圖에서의 山地의 表現은 어떤 것이었을까. 먼저 「地形圖」의 경우를 보면, 一種의 水平羽毛라고도 말할 수 있는 同心圓狀의 曲線으로 나타낸 山塊로서의 九嶷山은 별도로 하고, 一般 山地는 대략 일정한 幅을 가진 波型帶로 平面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帶의 兩側을 한정하는 곡선의 凸部에는 초생달 모양의 부풀음을 볼 수 있다. 이 波狀帶의 兩側의 線에 대하여 현대의 等高線에 가까운 것이라는가, 山麓線이라는 推定이 내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필자는 否定的 견해를 말한 적이 있다.⁹⁾ 지금 다시 山麓線을 묘사하는 西洋製地圖와의 比較에 의해서 전의 견해를 補強하고자 한다. 여기에 걸린 것은 15세기에 이탈리아에서 作成된 2種의 프톨레마이오스系의 地圖帳에 수록된 地圖(이탈리아)인데, 모두 山地를 平面의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地形圖」의 山地와 같이 帶狀이 아니고 줄이 많은 面的인 圖形이 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溪谷이 各處에서 파고들어간 山地의 넓이를 표현하려는 것으로, 正確性은 어떻든간에 山地를 둘러싼 曲線은 山麓線임이 틀림없다. 山麓線은 어디까지나 平地와 山地의 境界를 회피하나마 알게 하는 效果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으로 分水嶺 또는 山의 稜線의 위치를 알 수는 없다. 이러한 山麓線 記入圖와 「地形圖」를 對比시켜 보면 「地形圖」의 山地表現은 좀 異質的인 것이고, 波型帶의 兩側線이 山麓線 또는 一種의 等高線인 것이라는 논의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대체 「地形圖」의 波型帶는 山地의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兩側線의 凸部에 볼 수 있는 초생달型의 부풀음을 山頂, 支稜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만약 그렇다면, 帶의 兩側의 線은 山地의 側面型의 연속이 되어 대략 고르게 나타나는 幅의 설명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山地의 兩側에서 바라본 側面形을 地圖에 그리면 당연히 山峯의 부분은 幅이 없는 線이 되고, 鞍部는 대단히 큰 부풀음을 갖는 帶로 나타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즉 帶의 兩側線의 凸部로 서로 一致되어 「地形圖」에서와 같은 'S'자를 이어 놓은 모양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地形圖」에서 볼 수 있는 山地表現은 벌써 어느정도 記號

8) 이 兩圖는 「馬王堆漢墓帛書古地圖」(1977, 文物出版社刊)에 이미 發表된 關係論文을 첨부해서 複製되었다. 兩圖에 대한 필자의 見解는 아래의 拙稿에 의해서 참조하기 바란다.

拙稿, 「地圖學的見地よりする馬王堆出土地圖の檢討」, 「東方學報」, 京都, 第51冊, 昭和 54(1979), 59~82面.

9) 拙稿, 「地圖學的見地よりする馬王堆出土地圖の檢討」(前掲)

10) 拙稿, 「漢民族の地理思想——特にその地勢觀について——」, 京都大學文學部地理學教室編, 「地理の思想」, 昭和 57年(1979), 69~80面.

화된 山地列이지 分水嶺 내지는 山의 稜線의 대략적 위치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더욱 분명히 알리는 것은 「駐軍圖」이며 그곳에서의 山地는 완전히 記號화된 한줄의 波狀曲線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곡선에는 裝飾의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는 圖形이 첨부되어 있어 현실적인 分水嶺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되어 있다. 요약하면, 山地의 높은 곳이 이 부근에 연결되어 있다는 情報을 전달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地形圖」의 山地帶의 兩側線의 凸部에서 볼 수 있는 초생달형 부풀음도 단순히 河川, 기타의 地圖面에서의 曲線과 混同을 피하기 위한 記號의 표현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쪽이든간에, 「地形圖」 및 「駐軍圖」의 地形表現에 있어서 山地는 副次的인 것이고 河川流路가 중요했던 것은 명료하다. 兩圖 모두가 가장 신중하게 圖形화된 것은 河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천에는 각각 名稱이 註記되어 있는 데 대하여 山峯名은 하나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河川이 交通路로도 중요한 몫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줌과 동시에 測量의 단계에 있어서도 河川이 중심적 몫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누구에게도 확인하기 쉽고 沖積平野의 蛇行河川을 제외하고는 거의 位置不變의 河川流路는 地圖에 기재되는 地表의 座標로서 매우 效果가 큰 것이었을 것이다. 이들 漢代의 地圖에 있어서 山地列의 表現은 실은 河川流路에 대한 관심이 큰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어떻든간에, 漢民族에서는 옛부터 土地의 起伏를 系統的으로 파악하려는 試圖가 있었다. 예를 들면 흔히 指摘되는 「禹貢導山」에 있어서 그것을 볼 수 있다. 그곳에서는 대략 東西走하는 4列의 山地가 상정되어 있다. 한편, 中國의 독특한 卜地術인 風水(堪輿 또는 地理)에 있어서도 土地의 起伏를 龍으로 보고, 中國 전체로서는 崑崙山에서 시작되는 一脈에서 分岐한 세 줄기의 幹龍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認識에 도달한 것은 中國의 二大河川인 黃河·長江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이고 水系에의 강한 관심이 결국 山脈의 觀念을 탄생시켰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中國에서의 山地의 平面的 圖形化는 또 道教에 있어서 重用된 「五岳眞形圖」에서 볼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五岳眞形圖」에는 圖形이 상세한 것과 극히 간략한 2種이 있으며 전자는 얼마간 地圖의 要素를 담고 있으나 후자는 五岳각각의 ‘심볼 마크’와 같은 것이다.¹¹⁾ 부적(護符)으로서의 구실 밖에 하지 못했던 후자는 제쳐 놓고, 전자가 본래는 산의 稜線과 溪谷을 平面的으로 파악한 道士를 위한 山岳地圖였던 것은 이미 小川琢治氏에 의해서 밝혀졌다.¹²⁾ 「五岳眞形圖」라는 名稱은 이미 晉의 葛洪이 만든 「漢武帝內傳」에 나타나나 그림 그 자체가 成立된 것은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山地를 平面的으로 파악하는 점에서는 B.C. 2세기 「地形圖」·「駐軍圖」와 그 系統을 같이하며 「五岳眞形圖」도 뜻밖에 일찍 성립되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쪽이든간에, 기원전 中國地圖學에서 山地를 帶狀 또는 線狀으로 평면화하는 手法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韓國地圖學의 같은 수법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韓國의 山地를 線狀으로 그린 現存 最古의 작품인 龍谷大學所藏圖에서는 그 線이 波狀曲線으로 되어 있다. 한편 「地形圖」·「駐軍圖」에 있어서도 山地는 波狀의 帶 또는 線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類似性 내지 共通性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가볍게 다룰 것은 아니다. 古來로 中國地圖學의 영향을 많이 받은 韓國에서, 10수세기라는 年代의 차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공통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淵源이 中國地圖學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中國社會에서는 衰微한 수법이 韓國에서는 오랫동안 存續해 왔는가? 그것은 아마도 韓國社會에서 道教(神仙)과 風水가 後世에까지 성했다는 것과 관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風水術에서는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龍脈」·「山脈」이라는 觀念이 강하고 토지의 起伏에서 脈絡을

11) 井上以智爲, “五岳眞形圖に就いて”, 「內藤博士還曆祝賀支那學論叢」, 大正 15年(1926), 43~91面.

12) 小川琢治, 前掲書 32~40面.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실 앞에 말한 金正浩의 「大東輿地圖」(1861年刊)의 山地表現은 列狀이라고는 하나 일반 風水地圖와 共通된다.¹³⁾ 韓國의 風水術은 이미 9세기에 道詵(826—898)에 의해서 확립되어 있었다고 하므로 地圖에서 山地의 平面的 표현도 그무렵부터 행해졌을 것인가? 어쨌든, 이러한 수법이 언제 韓國에 傳來한 것인가, 또 그것이 中國社會에서는 의외로 빨리 衰退한 데 대하여 韓國에서는 왜 쉽게 없어지지 않았는가 등에 대해서는 금후 다시 연구를 계속하고자 한다.

(李 燦 옮김)

13) 山稜을 굽은 線으로 表示한 金正浩의 「大東輿地圖」의 山地表現法이 옛적에 傳來된 「五岳眞形圖」의 遺法을 繼承하였을 것이라고 小川琢治氏는 推定하였다. (小川琢治, 前掲書, 40面)

全相運氏는 韓國의 一般地圖에서의 山地表現法은 風水의 墓圖 등에서 影響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全相運, 前掲書, 308面).

14) 全相運, 前掲書, 307面.